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박수연 · 양혜경 · 장은정

I. 목표(Goal)의 의미

1. 목표 설정 배경 및 의의

SDGs의 교육 분야 개발목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이며, 이는 전체 17개 목표 중 4번째 목표로 지정되어 있다. 먼저 ‘모두를 위한(for all)’은 범세계적인 기초교육 운동인 Education for All(EFA)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며(김진희 외 2014:3), 이는 SDGs 내에서 교육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차원에서 강조되는 용어이다. 마찬가지로, ‘포용적이고 공평한(inclusive and equitable)’은 SDGs의 기본 정신으로, 그간의 개발이 소수 국가, 소수 계층 및 민족에 편중된 혜택을 낳았다는 반성에 의거, SDGs 전체 목표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이다.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은 MDGs가 지나치게 양적 성장에 집중하여 교육의 질이 도외시되었다는 비판에 의해서 새로운 교육 목표 내에서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기회(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는 MDGs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개발목표였던 데 반해서, SDGs는 선진국에도 적용되는 개발목표라는 차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이다(김진희 외 2014:95). 즉, 초등교육 달성, 교육에서의 성평등 달성이라는 개발도상국의 교육 이슈가 아닌, 선진국에서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는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본 교육 목표가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을 아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SDGs 교육 분야 세부목표들은 영유아 교육부터 성인 교육까지 인간의 전체 발달단계의 모든 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세부목표 모두를 아우르는 상위목표로 쓰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작용하였다고 본다.

교육은 MDGs 8개의 목표 중 목표 2 ‘보편적 초등 교육 실현¹⁾’과 목표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²⁾’ 모두에서 강조되어 MDGs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반면, SDGs 내에서 교육목표는 독립목표이기는 하나, 전체 17개의 목표 중 하나로 지정되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개발이 주된 목표였던 MDGs와 달리 SDGs는 경제·사회·환경 이슈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김진희 외 2014:95). 하지만 새로운 개발목표의 제정 및 실행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김진희 외 2014:3). 2012년 UN은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을 발족시키며, 개발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을 확고히 한 바 있다. 또한, GEFI의 3대 우선순위 중 하나인 글로

1) 세부목표: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전 과정 이수.

2)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격차 철폐.

별시민성(Global Citizenship) 함양은 SDGs 전체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로 21세기 교육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2. 2000-2015 교육 분야 개발목표 성과와 한계

이 장에서 논의될 SDGs의 교육 분야 개발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MDGs라고도 불리는 EFA 목표를 구체화한 다카르 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는 MDGs와 시기(2000~2015)를 같이 하는 교육 분야의 독자적인 세계 목표로,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164개국 정부 및 지역기구, 국제기구, 원조기관, NGO 및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채택된 6개 교육목표와 12개의 목표 달성 전략이다 <표 4.1>. MDGs와 SDGs 간에는 괄목할 만한 차이가 있지만, EFA 목표와 SDGs는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00~2015년까지 교육 분야 개발목표의 진전 상황을 EFA 목표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1> 다카르 행동계획 EFA 목표(2000)

-
- 목표 1. 취약 전 아동의 복지 및 교육의 개선
 - 목표 2. 모든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무상 초등 의무 교육 달성
 - 목표 3. 성인 및 어린이를 위한 생활 기술 훈련 및 교육의 증진
 - 목표 4. 성인 문맹을 50% 개선
 - 목표 5.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 대한 남녀 격차 해소 및 2015년까지 교육 성평등 달성
 - 목표 6. 모든 면에서의 교육의 질 향상
-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UNESCO는 최근 발간된 2015년 EFA 글로벌모니터링 보고서(Global Monitoring Report, GMR)에서 2000년부터 목표제정 시점부터 2015년 목표달성 시한까지의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2000~2015 기간 동안의 각 EFA 목표별 진전 세부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기여한 국제사회의 지원전략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합의된 인천 실행계획과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특히 2010~2015 기간의 EFA 목표별 진전 세부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앞서 살펴본 EFA 교육목표 중 두 번째 목표인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목표는 MDGs의 두 번째 목표로 채택되어 사실상 2000-2015년 기간 동안 국제사회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되었다. 2014년 MDGs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 세계 평균 초등학교 순취학률(net enrollment ratio)은 2000년 83%에서 2012년 90%로 크게 증가되었고, 그 결과 학교 밖 아동 수는 2000년 1억 명에서 2012년

〈표 4.2〉 2000-2015 EFA 목표달성 현황 및 국제사회 기여 분석

목표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 영유아 사망률이 거의 5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630만 명의 5세 미만 아동은 대부분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함 • 아동영양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전 세계 아동 중 4분의 1은 만성적인 필수영양소 부족의 결과로 나이에 비해 작음 • 2012년 전 세계적으로 1억 8천4백만 명의 아이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취학했으며, 1999년 이후 거의 3분의 2가 증가했음
목표 2 보편초등교육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초등학교 순취학률이 1999년 84%였으나, 2015년 93%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됨 • 1999~2012년 사이 초등학교 순취학률이 적어도 20% 포인트 이상 증가한 17개국 중 11개국은 사하라 이남 국가임 • 취학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 거의 5,800만 명의 학교 밖 아동이 존재하며, 그 수가 거의 줄지 않고 있음 • 교육접근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음. 대부분 사하라 이남 국가인 32개국에서는 적어도 20% 학생들이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함 • 2015년까지 저소득국과 중소득국 아이들 중 6분의 1인 10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할 것임
목표 3 청소년 및 성인 기술 (Youth and adult skills)	• 중학교 총 취학률은 1999년 71%에서 2012년 85%로 증가. 아프가니스탄, 중국, 에라도르, 말리, 모로코에서는 중학교 취학률이 적어도 25% 증가함 • 초등에서 중등학교 진급하는데 불평등이 지속됨.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는 가장 가난한 가정의 초등학교 졸업생 중 69%만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반면, 가장 부유한 가정의 94%가 진학함 • 조사된 94개 저소득국과 중소득국 중 대부분이 1999년 이후 무상 초기중등교육 법안을 마련함. 이 중 66개국은 헌법적 보장을, 28개국은 다른 법적 제도를 입법함. 2015년 현재 보츠와나, 기니, 파푸아뉴기니,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 몇몇 국가만 초기중등교육 비용을 청구하고 있음
목표 4 성인문해 (Adult literacy)	• 전 세계적으로 7억 8,100만 명의 성인 문맹자가 존재함. 성인문맹률은 2000년 18%에서 2015년 14%로 약간 감소하여 다카르 행동계획 목표는 달성하지 못함 • 2000년 기준 문해율이 95% 미만인 73개국 중 17개국만이 2015년 성인문해율이 50% 감소됨 • 성인문해의 양성평등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충분함. 2000년 기준 남성 100명 당 여성 90명 미만의 성인문해율을 보이던 43개 모든 국가가 양성평등에 근접해가고 있으나, 그 중 어느 국가도 2015년까지 성인문해 양성평등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목표 5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 초등교육 수준에서 전 세계 국가 중 69%가 2015년까지 양성평등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됨. 중등교육의 개선속도는 더 느려서, 2015년까지 48%가 양성평등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됨 • 심각한 성 격차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됨. 1999~2012년 사이 초등학교에서 100명의 남학생 당 90명 미만의 여학생이 등록한 국가의 수는 33개국에서 16개국으로 감소함 • 학교 밖 아동 중 여학생(37%)들은 남학생(48%)보다 전혀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반면 남학생(26%)들은 여학생(20%)보다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많음. 여학생들은 입학을 하면 고학년까지 도달할 확률이 높음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의 여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음. 2010년 기니와 니제르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의 여학생 중 70% 이상이 초등학교에 한 번도 입학하지 않은 반면, 가장 부유한 계층의 남학생들은 20%만 입학하지 않음
목표 6 교육의 질 (Quality of education)	• 초등교육 조사정보가 있는 146개국 중 83%는 교사대학생 비율이 감소함. 그러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초등교사 중 75%에 못 미치는 교사들만이 국가기준에 부합하는 교사훈련을 받음 • 초기 중등교육 단계 조사정보가 있는 105개국 중 87개국만이 교사 대 학생 비율이 30:1 미만임 • 1990년 국가기준에 따른 학습평가를 12회 실행하였으나 2013년 101회로 증가

출처: UNESCO(2015)

5,8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 밖 아동 수 감소 속도가 늦춰지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분쟁지역의 아동들이라는 사실은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 더 많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개발도상국 아동 중 4분의 1은 중도탈락 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초적 문해능력(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전 세계 7,800만 명의 성인과 1억 2,600만 명의 청소년 중 60%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II. 목표(Goal)별 분석

1. 세부목표 별 목표와 지표체계

〈표 4.3〉 ‘목표 4’의 세부 목표와 지표(안)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상의 공평하고 양질의 초등 교육과 중등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한다.
P/1	[우선지표] 각 단계별 교육 수료 이후 (a)읽기와 (b)수학 분야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2	수료율(초등, 전기 중등, 후기 중등)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돌봄, 초등 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P	[우선지표] 5세 미만 아동중 보건, 학습, 심리적 건강(well-being)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아동의 비율
1	영유아 발달 지표
2	조직된 학습참여 비율(공식 초등입학 연령 1년 전)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과정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P/1	[우선지표] 교육 수준 및 형태별 등록률(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 (a) 15-24세 인구 중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비율, (b) 고등교육 총입학률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x% 증대한다.
P	[우선지표] 25-64세 인구 중 인터뷰 12개월 전에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인구 비율
1	청소년 및 성인 ICT 활용능력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P/1	형평성 지수(성별, 도농별, 소득수준별 지표 분리 수집 필요)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최소 x%의 성인 남녀가 문해력과 수리력을 성취하도록 보장한다.
P/1	[우선지표] 기능적 (a)문해 및 (b)수리 기술 능숙도가 적어도 일정 수준을 달성한 청소년과 성인들의 비율
2	청소년과 성인들의 문해율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한다.
P/1	중등학교에 입학한 15세 학생 중 환경과학과 지구과학 분야 선택적 주제에 걸쳐 적어도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보이는 학생들의 비율
2	평등과 신뢰, 거버넌스에의 참여를 증진하는 가치와 태도를 지지하는 13살 학생들의 비율
4.a	아동, 장애인, 성차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P/1	(i) 전기, (ii) 교수법 목적의 인터넷, (iii) 기초 식수, (iv) 기초 위생시설, (v) 기초 손씻기 시설(WASH 지표 정의에 따른)에 접근가능한 학교 비율
1	(i) 전기, (ii) 식수, (iii) 성별 분리 화장실(WASH 지표 정의에 따른)에 접근가능한 학교 비율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SIDs, 아프리카 국가에서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수를 x% 확대한다.
P/1	학습 분야 및 형태에 따른 장학금 ODA 규모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SIDs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x% 증대한다.
P/1	국가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수준에 따라 훈련받은 교사 비율

주: 우선지표(P)는 2015년 6월 개최된 제 1회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에 관한 기구 및 전문가 집단 회의(IAEG-SDGs)에서 제안됨.

출처: UNSD(2015)

2. 세부목표 4.1 & 4.2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상의 공평하고 양질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한다.
	• [우선지표] 각 단계별 교육 수료 이후 (a)읽기와 (b)수학 분야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 제안된 지표 1: (i) 초등 (ii) 전기 중등 교육을 마친 뒤 읽기와 수학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하는 아동의 비율 • 제안된 지표 2: 수료율(초등, 전기 중등, 후기 중등)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돌봄, 초등 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우선지표] 5세 미만 아동중 보건, 학습, 심리적 건강(well-being)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아동의 비율
- 제안된 지표 1: 영유아 발달 지표
- 제안된 지표 2: 조직된 학습참여 비율(공식 초등입학 연령 1년 전)

지속가능발전목표 4.1과 4.2는 MDGs 두 번째 목표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서 확대되어 유아교육부터 우리나라의 중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전기 중등교육까지 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MDGs 교육목표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기초교육의 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

앞서 논의된 EFA 목표에서는 교육의 접근성 부문에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성별격차 해소 부문에서 중등교육을 포함하는 ‘기초교육’ 분야의 성 평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MDGs에서는 초등교육 수준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초등학교 등록률 향상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등록률로 대변되는 교육의 접근성 측면이 집중적으로 강조되면서 교육의 질 제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유아교육과 더불어 초등과 중등교육을 종합하는 기초교육, 성인교육까지 포괄하여 ‘모든 이’를 위한 교육지원을 촉구하는 EFA 목표가 MDGs 제정 이후 초등으로 한정된 교육지원으로 퇴보하였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5년 EFA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12년 사이 유아교육 등록률은 64% 상승하여 전 세계 초등 전 교육 총 취학률(Gross Enrollment Ratio, GER)은 1990년 27%에서 1999년 33%, 2012년 54%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1억 8,400만 명의 아동이 유아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농 간 격차와 국가 간 격차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중남미 및 카리브 해 지역의 초등 전 교육 총 취학률(GER)은 74%, 북아메리카 및 서유럽 지역은 89%인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 아랍 지역은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유아교육 중 사교육 비율이 28%에서 31%로 증가하여 유아교육 비용 문제로 빈곤계층과 지방주민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MDGs 기간 동안 국제사회가 초등교육 취학률 지표를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의 지표로 설정한 뒤로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초등교육 취학률은 1999년 84%에서 2012년 97%로 상승하였다. 2000년 1억 명의 학교 밖 아동 수가 2012년 5,800만 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이들 중 절반은 분쟁 지역에 살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44%, 남아시아 지역에 19%,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에 14%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교육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 간, 성별 간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UN 2015:17). 또한 취학률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2011년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 초등학생이 최고 학년까지 탈락하지 않고 남아있는 비율은 73%로 중도탈락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논의되면서 국제사회는 EFA와 MDGs 교육목표를 추진한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교육의 접근성과 질 제고 모든 측면에서 유아교육에서부터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아우르는 확장된 기초교육으로 다시 초점을 가져오고 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5세 미만 아동중 보건, 학습, 심리적 건강(well-being) 발달정도를 우선지표로 선정하여 초등교육 준비도 향상을 위한 유아의 통합적인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초등 및 전기 중등교육 분야에서는 MDGs에서 간과되었던 교육의 질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단계의 교육을 수료 한 이후 읽기와 수학 분야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하는 학생의 비율을 지표로 제안함으로써, 기초교육의 양적성장 측면을 강조하던 데서 벗어나 교육성과 중심의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3. 세부목표 4.3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과정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우선지표] 교육 수준 및 형태별 등록률(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 (a) 15-24세 인구 중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비율, (b) 고등교육 총입학률
- 제안된 지표 1: 고등교육총취학률
- 제안된 지표 2: 청소년 직업기술교육훈련 참여율(15- 24세)

세부목표 4.3은 기초교육 단계 이후의 청소년과 성인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문제와 교육의 방향을 다루고 있다. 특히, 기초교육이 인간다움 삶을 위한 기본권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인 것에 반해,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날로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 축적과 지식공유에 방점을 두고 의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당초 EFA의 3번 목표인 청소년 및 성인의 학습과 생애기술훈련에의 접근성 제고는 전 세계 기준 약 45%의 국가만이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 세계 평균적으로 중학교 교육 취학률은 2012년 기준 85%, 고등학교 교육 취학률은 6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도서국가들에서는 아직 고등학교 취학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더욱 국가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대비 고소득국의 고등교육의 접근성은 취학률 80%대 수준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진 반면, 저소득국가에서는 아직도 10%가 안 되는 수준으로 국가그룹 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개인 및 국가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 등록생수는 저소득국가에서 오히려 그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도국 13-18세 사이의 중등교육 학령기 청소년 중 직업기술교육을 받는 비율이 중상소득국가 이상에서는 약 14% 수준인 반면, 저소득국이나 중저 소득국에서는 2~3% 수준으로 나타나 중등학교 졸업하고 고등교육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 비율이 월등히 높은 개도국에서 정작 직업기초능력을 개발하는 실용적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 세부목표 4.4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x% 증대한다.

- [우선지표] 25-64세 인구 중 인터뷰 12개월 전에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인구 비율
- 제안된 지표 1: 성인 교육 참가율(정규, 비정규 교육 포함)
- 제안된 지표 2: 청소년 및 성인 ICT 기초능력

직업기술능력은 중등교육, 직업기술교육, 현장 기반 훈련 등에 의해 취득된다. 직업기술능력은 생계를 위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문해력, 수리력, ICT 활용능력 등을 포함한 기본기술과 HIV/AIDS나 남녀평등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에 대한 습득을 포함한다.

제안된 지표인 성인들의 교육 참가율은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보다 나은 직업으로의 이동, 자기계발 등을 위한 성인들의 평생학습참여를 나타내는데, OECD 국가의 경우 평균 약 51%의 성인들이 교육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15). 이 지표가 SDGs의 교육세부지표로 사용될 경우 OECD 국가나 유럽/북미지역 외의 국가의 경우 정규교육이나 비정규교육 포함 교육활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체계를 먼저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성인 및 청소년의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고 ICT는 지식기반사회에서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개도국에도 보편화된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문해력 학습을 하고 있거나, 농촌지역 농부가 휴대전화로 수확물 출하가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듯이 ICT 활용 능력은 글로벌화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 및 청소년의 ICT 기초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OECD에서 DRA (Digital Reading Assessment)라는 조사를 통해 학생 대상 일상생활에서의 ICT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시범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UNESCO 통계국(UIS)이 대륙권역별로 국가별 ICT 활용교육지표개발 및 파일럿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차원의 ICT 능력보다는 국가 차원의 ICT 활용교육의 준비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ICT 관련 사기업에서 부여하는 자격증 등이 성인 및 청소년의 ICT 기초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지표들을 국가적으로 수집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계화하는 작업은 별도의 수집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 ICT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조정기구 부재, 개도국의 열악한 ICT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아직 광범위한 효과성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ICT가 교수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ICT의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으로의 통합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ICT 인프라 부족 문제 외에도 교수학습에 있어 숙련된 ICT 활용능력을 갖춘 교사의 부족 문제, ICT 민관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등 복잡한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5. 세부목표 4.5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 [우선지표] 형평성 지수(성별, 도농별, 소득수준별 지표 분리 수집 필요)
- 제안된 지표: 형평성지수

세부목표 4.5는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교육접근성과 자원 조달 방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SDGs 보고서에서는 교육의 성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격차에 대한 세부 지표를 선정하였다. UNESCO 통계국(UIS)에 따르면 100여개 국가에서 성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SDGs 교육 세부지표 수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국가 공용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은 교육에의 참여와 성취 측면에서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소수민족의 경우 모국어나 이중 언어로 수업을 받으면 교육의 접근성에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문해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남미 지역 오지에 거주하는 성인들의 경우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발간되는 유네스코 EFA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도 이래로 모국어에 기반을 둔 성인 문해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개도국의 책무성과 개발재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UNESCO에서는 회원국 정부에 국민소득의 6%까지 교육예산으로 할당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공표된 인천선언문에도 이 같은 사항은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저소득국일수록 한정된 공공재원을 초등교육에 집중 투입하여 가난한 가정 출신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저소득국은 초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학생 1인당 11배나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소득국의 경우 이 비율은 1.3배에 지나지 않아, 저소득국일수록 교육재원이 가난한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UNESCO 2015:258-259).

가난한 국가일수록 공적 자원보다는 교육 실수요자인 가구당 교육비 부담률이 더욱 높은 경향을 보인다. 유네스코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재원 교육비 부담이 낮은 25개 국가에서 가구의 교육비 부담률은 총 교육비 재원의 42%를 차지한 반면, 공공재원 교육비 부담이 높은 국가에서는 가구의 교육비 부담비율이 27% 수준에 머물렀다(UNESCO 2015:260).

2000년도 이래로 MDGs의 하나인 초등교육 보편화를 달성하기 위해 초등교육 분야 ODA 재원이 2010년까지는 연평균 6%씩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감소 추세로 전환하여 2010년과 2012년 사이에는 1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UNESCO 2015:262-263). 2012년 기준 교육 ODA의 절대적인 규모도 중등이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분야가 기초교육 분야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UNESCO 2015:262). 특히, 성인교육이나 원격교육, 비정규교육, 특수교육 분야는 공여기관의 주요 전략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부산 포럼에서는 다자원조나 글로벌펀드를 활용한 공여기관 간 원조조화를 강조하였으나, 아직까지 기초교육 분야 양자원조는 특정 지역이나 섹터에 한정되어져 있다. 한편, 기존의 ODA와는 별도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개발재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 분야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6. 세부목표 4.6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최소 x%의 성인 남녀가 문해력과 수리력을 성취하도록 보장한다.

- [우선지표] 기능적 (a)문해 및 (b)수리 기술 능숙도가 적어도 일정 수준을 달성한 청소년과 성인들의 비율
- 제안된 지표 1: 문해와 수리에 능숙한 청소년과 성인들의 비율
- 제안된 지표 2: 청소년과 성인들의 문해율

SDGs 교육 세부목표 4.6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수리력’이 ‘문해력’과 같은 비중으로 목표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문해(Literacy)교육의 경우는 2000년 다카르 행동계획에서 목표 4, 독립 목표로 제정되었으나, 수리(Numeracy)교육의 경우는 목표 6 ‘교육의 질 향상’ 목표에 간접적으로 문해력, 필수적인 생활 기술과 같이 다루어졌었다(UNESCO 2000:16–17). 하지만, SDGs에서는 수리를 문해와 동일 세부목표 안에서 같은 비중으로 명시하고 있다. SDGs의 초안을 만든 OWG 회의 초반에는 ‘문해교육’만 논의되었으나, 제12차 세션에서 수리교육이 처음으로 추가되었다(김진희 외 2014:110).

문해교육의 경우 다카르 행동계획에 독립목표로 포함되어 있으며, UN 문해 10년(UN Literacy Decade, 2003–2012)이 제정되었었다. 하지만, 실제 2000–2015년간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성과도 미진하였다(김진희 외 2014:47). MDGs에 포함된 보편적 초등교육, 교육에서의 성평등은 많은 진보를 보였으나, 영유아 교육, 청소년과 성인 학습, 문해교육은 가장 도외화된 세 가지 영역으로 꼽힌다(UNESCO 2006:18–19).

따라서 중요하지만 달성되지 못한 문해교육이 SDGs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7월 OWG의 SDGs 최종안에서는 문해율 개선 지표를 x%로 상정하여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5년 3월 개정안에서는 SDGs가 EFA의 ‘문해율 50% 향상’ 목표보다 야심차게 계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동 지표를 ‘모든 청소년과 성인들의 문해 및 수리력 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UN 2015:2).

7. 세부목표 4.7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한다.

- [우선지표] 중등학교에 입학한 15세 학생 중 환경과학과 지구과학 분야 선택적 주제에 걸쳐 적어도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보이는 학생들의 비율
- 제안된 지표 1: 환경과학과 지구과학 지식에 능숙함을 보이는 15살 학생들의 비율
- 제안된 지표 2: 평등과 신뢰, 거버넌스에의 참여를 증진하는 가치와 태도를 지지하는 13살 학생들의 비율

SDGs 교육 세부목표 4.7은 교육 분야 목표 중 가장 특별한 목표라 말할 수 있다. 투입관련 목표인 4.a~c를 제외한 4.1~6까지의 목표는 EFA 목표에서 다루어졌던 목표인데 반해서 세부목표 4.7은 EFA 및 MDGs 어디에서도 논의된 적 없는 전혀 새로운 교육목표이다. 본 교육은 현재 많은 OECD DAC 국가 내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글로벌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글로벌교육(Global Education), 글로벌학습(Global Learning)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으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 등을 중요시한다. 이 교육은 인지적인 면만이 강조된 20세기 교육을 넘어서, 비인지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21세기 미래교육 범주에 들어간다. 즉, 이 목표는 SDGs가 기존의 개도국 중심의 교육에서 선진국을 포함한 교육목표로 확대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세부목표라 할 수 있다.

특히 UN 지속가능개발교육을 위한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이 2014년으로 종료되었지만, 지속가능개발교육은 SDGs의 시작과 함께 중요성이 오히려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DGs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글로벌시민교육은 SDGs 체제에서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적 책임(Global Responsibility)과 권리를 가진 신인류를 창조한다는 개념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세부목표에 비해서 제안된 지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먼저 지표 1의 환경과학과 지구과학교육은 세부목표에 언급된 교육을 대표하지도 않으며, 상관도도 매우 낮다. 지표 2는 관련 있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역시 목표 4.7 전체를 아우르는 지표가 아니므로, 지표 개발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세부목표 4.a

4.a 아동, 장애인, 성자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우선지표] (i) 전기, (ii) 교수법 목적의 인터넷, (iii) 기초 식수, (iv) 기초 위생시설, (v) 기초 손 씻기 시설(WASH 지표 정의에 따른)에 접근 가능한 학교 비율
- 제안된 지표 1: (i) 전기, (ii) 식수, (iii) 성별분리 화장실(WASH 지표 정의에 따른)에 접근가능한 학교 비율

지속가능목표 4.a는 앞서 언급된 세부목표 4.1부터 4.7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목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전반을 검토하면서 국제사회는 개발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지난 개발목표 추진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불평등 감소 및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 개발목표로 지난 EFA와 MDGs를 추진해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장애우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고, 성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교육시설을 지원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행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초등학교 등록률을 강조했던 지난 MDGs 기간 동안 교육시설과 학습 환경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등록률이라는 지표에서 간과되었던 교육의 질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교육시설과 학습 환경에 대한 구체적 요건들을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동 목표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습 환경의 요건으로 장애나 빈곤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학습자를 포괄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의한 것은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9. 세부목표 4.b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SIDs, 아프리카 국가에서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수를 x% 확대한다.

- [우선지표] 학습 분야 및 형태에 따른 장학금 ODA 규모
- 제안된 지표: 수원국 정부에 할당된 고등교육 장학금 ODA 규모

유네스코가 조사한 국가교육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선진국과 개도국의 유학생 수는 각각 280만 명, 86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의 149만 명, 37만 명에 비해 90%, 130% 증가한 수치로서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가속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으로의 유학생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 특히 동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은 거의 3배 수준으로 유학생 수가 증가하였다.³⁾

전공별 고등교육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국의 경우 공학이나 보건의로 관련 전공에 재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고소득국보다 월등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SDGs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도국 학생들이 공학이나 과학기술 분야 공부를 위해 다른 개도국이나 선진국으로 유학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자 수를 대폭 증가하여 이 분야에 전공 지식을 갖춘 인력을 증가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 고등교육 체제 강화를 지원하기보다는 선진국으로의 유학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지표로 삼음으로써, 개도국 두뇌유출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지표라고 판단된다. OECD DAC와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중등이후 교육에 지원된 ODA의 72%가 고등교육 장학생 재정지원 형태라고 나타나 있다(UNESCO 2015:262). 선진국에서 유학한 학생이 학업 종료 후 고국으로 돌아가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보장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제안된 세부지표는 OECD DAC의 ODA 통계 유형 E01(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E02(공여국내 간접 연수생 비용)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파악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10. 세부목표 4.c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SIDs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x% 증대한다.

- [우선지표] 국가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수준에 따라 훈련받은 교사 비율

지속가능목표 4.c는 교육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언급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실행목표이다.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국제사회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전문성을 갖춘 열정적 교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우리

3) 유네스코 통계사이트: <https://en.unesco.org/gem-report/statistics>

4) 유네스코 통계사이트: <https://en.unesco.org/gem-report/statistics>

나라와 같이 효과적인 교육발전을 이룬 사례의 핵심원인으로 역량 갖춘 교사가 풍부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는 등, 개발을 위한 교육 목표로서 교사훈련의 중요성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MDGs 기간 동안 초등학교 등록률이 평균적으로 눈에 띄게 상승하여 등록률만 살펴보면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 목표를 성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결과를 평가해보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초등교육을 이수하고 나서도 기초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등록률 이면의 초등교육의 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Barret 2009).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교육지원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교사 중 많은 수가 교사양성체계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자격을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적절한 교사훈련을 통해 자신의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근본적인 교육의 질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 교사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세부목표 4.c 수립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의 공급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국제협력을 통한 교사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와 순민간증여(net private grants) 비율과 국민총소득대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배분된 분야별 국내 재원 비율이 지표로 제안되었다. 또한 지난 3월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표와 모니터링 체계에 관한 다양한 그룹의 지속적인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모든’ 학습자가 자격을 갖춘 교사의 가르침을 받도록 목표를 수정하는 요청도 있었다. 자격을 갖춘 교사의 구체적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이 목표의 제정목적이 교사 부족의 간극을 메우는 데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교사훈련 관련 목표는 SDGs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로서 2030년까지 학습자를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이 자격을 갖추도록 합의해나가며 교사훈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국제사회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사의 역할에 주목하고 2030년까지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에 합의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III. 우리의 대응 전략 및 기여방안

1. 우리나라에 주는 합의 및 대응방안

세부목표 4.1로 추진하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부문의 교육 접근성 향상 및 질 제고는 우

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MDGs 기간 추진해온 초등교육 중심, 특히 초등학교 등록률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지난 15년간의 교육 ODA의 한계와 문제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세부목표 4.1은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을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의 기초교육으로 개발협력 정책의 관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보편적 초등교육 목표달성이 미진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일정 이상 초등교육 등록률이 성장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학습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여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초등부터 전기 중등교육 단계를 끝까지 이수하도록 중도탈락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읽기와 수학능력이 최소한의 숙달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표가 설정된 것은 이미 교육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질제고, 교육 시스템 강화를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교육 ODA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초등교육을 넘어 중등교육 수준에서도 교육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교육과정과 교보재 개발 등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부목표 4.c와 연계하여 교수법 개발과 연수를 통한 교사의 교육역량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높다.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초등교육에 집중되었던 MDGs의 교육 분야 개발목표에서 중등교육 수준까지 포함하는 기초교육으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 준비성을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부목표 4.2로 추진되고 있는 유아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영유아 발달 지표와 조직적인 유치원 수준 교육비율이 지표로 설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 기관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교육 ODA 사업들이 지표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목표 추진체계를 가지고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교육 분야 ODA 지원의 수요 및 필요성 측면에서 초등 전 유아교육 부문은 초등 및 전기 중등교육 부문 부문에 비해 효과성 및 파급력이 낮고, 우리나라의 사업수행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효과적인 사업모델에 기반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높다.

세부목표 4.3 관련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은 남녀 모두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졌고, 직업기술교육 분야에서는 중등교육 수준보다 고등교육으로 분류되는 전문대 수준으로 고학력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세부목표 4.3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4.b 세부목표는 고등교육이나 과학기술교육 분야 개발도상국 유학생 지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제도를 통해 학사 및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고, KOICA는 국내 주요대학들과 협력 체제를 구

축하여 개발도상국 젊은이들의 장기 석·박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의 국제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초청 장학생 등 장기 과정의 장학생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반영하여 고등교육 지원사업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목표 4.4의 경우 교육시스템과 교육시스템 외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직업 세계와 생애전반에 걸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제시된 지표가 청소년과 성인의 ICT 활용능력으로 설정되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직업 기초역량과 생애기초역량을 나타내는 대표지표로 선정되었으나,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에는 지표가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ICT 활용능력은 OECD 국가 중에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ICT 활용능력 격차보다는 세대간 ICT 활용능력에 격차가 존재하는 걸로 나타나 있다. 개발협력 측면에서는 ICT가 우리나라 비교우위로 알려져 있는 만큼 유상원조를 활용한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이나 전국단위 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상원조로는 학교 단위의 ICT 활용 지원, 교육과정 개발, 커뮤니티 기반 ICT 센터 구축이나 개발도상국 ICT 인력 양성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 분야에서 ICT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와 경제 전반적으로 ICT에 대한 활용 수요와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ICT 활용교육의 효과가 양질의 직업세계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목표 4.5의 취약계층 대상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의 경우 모국어 기반 수업이나 기초교육 무상교육 실시 완료 등 대부분의 세부지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의 가구당 교육비 부담률은 사교육 등을 고려할 때 OECD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교육비 부담률을 갖고 있다.

한국의 저소득국가 ODA 비중은 2012년 기준 36% 수준이며 교육 분야 ODA 비율은 약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⁵⁾ 국제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취약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높다.

세부목표 4.6 문해력과 수리력 달성은 그간 한국 교육 ODA 분야에서 크게 각광 받던 분야는 아니었다. 이는 MDGs에 포함된 목표가 아니었으며, EFA 다카르 행동계획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EFA 자체가 교육계의 이슈이지 우리나라 개발계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외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해 및 수리교육 관련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5) OECD DAC 통계사이트 : https://public.tableau.com/views/AidAtAGlance/DACmembers?:embed=y&:display_count=no?&:showVizHome=no

노력이 현재까지는 미진하였으나, 동 목표가 SDGs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놀라운 문해 및 수리력 달성의 역사와 경험이 개도국에 줄 수 있는 교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목표 4.7은 특별히 한국 차원에서 갖는 함의가 매우 크다. 먼저 세부목표 4.7은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급증하는 ODA 규모로 인해, 대국민 이해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부교육으로 들어가 있는 글로벌시민교육의 경우, 2012년 9월 반기문 사무총장의 GEFI 발족 이후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9월 외교부와 교육부 주최로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 국제회의를 개최된 바 있으며, 한국 UNESCO APCEIU와 교육부의 주도적인 역할 하에 UNESCO 글로벌시민교육 1, 2차 포럼이 2013년 12월 태국과 2015년 1월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2014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GEFI 고위급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이 글로벌시민교육의 주요 지지국으로서 글로벌시민교육이 새로운 교육 목표의 핵심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근 5월에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개최국인 한국정부의 핵심의제로 글로벌시민교육이 지정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계 모든 학습자들이 글로벌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글로벌시민교육의 확산을 지원해 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15년간 한국은 글로벌시민교육을 모범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를 확산해야할 국제적 책무를 갖게 되었다.

현재 개발교육, 글로벌시민교육, 지속가능개발교육 모두가, 지속가능한 생활습관, 인권, 성평등, 평화, 문화다양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간 내용이 서로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어, 교육 간의 차이와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부목표 4.7을 위한 개발계와 교육계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급증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설득으로 Post-EFA와 SDGs 안에 글로벌시민교육이 포함된 바, 향후 글로벌시민교육은 한국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단, OECD DAC 국가들의 경우 개발계를 중심으로 글로벌시민교육이 뿌리내린 반면, 한국의 경우 교육부가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관련 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개발계와 교육계간의 향후 협력이 글로벌시민교육의 양적·질적 제고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부목표 4.a는 교육시설과 학습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건립하는 교육시설이 장애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시설로 구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도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또한 물리적 시설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이 폭력과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이 효과적인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표로 추진되는 동 세부전략은 우리나라 ODA의 기본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ODA를 통해 추구해야 할 장애, 성별을 포함하는 다양한 차별요소를 없앤 효과적인 학습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세부목표 4.c는 앞서 논의된 세부목표 4.1과 연계하여 교사 역량강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발전경험을 논의할 때 우수한 교사의 역할은 특히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왔고, 교육의 질 제고 측면에서 교사의 역량은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UNESCO 2015). 따라서 향후 교육 ODA에서 기초교육 분야와 직업훈련교육 분야에서의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2. KOICA의 대응방안

KOICA는 지난 MDGs 기간에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수준의 교육 접근성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속가능목표의 세부목표 4.1과 4.2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포괄하는 기초교육과 유아교육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발협력 정책의 관점이 확대됨에 따라 각 나라별 교육상황에 따라 현지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ODA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상당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등 보편적 초등교육 목표달성이 미진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전 세계 평균수준의 초등 및 중등 수준의 교육 접근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도탈락률을 낮춰 초등과 중등 각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MDGs 기간 동안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일정이상 달성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는 초등과 중등단계를 이수한 뒤 읽기와 수학능력이 최소한의 숙달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등교육의 보편화 정도가 높을수록 영유아 발달지표나 조직된 유아교육 참여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시스템과 교육상황에 따라 시민사회 등 민간 파트너십을 활용한 지원과 WFK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다수가 국별 프로젝트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기초교육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에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성과지표인 교육 이수율 및 학습 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KOICA에서 추진하는 기초교육 분야 사업이 총체적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중식 성과관리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세부목표 4.3, 4.4 관련하여 KOICA는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에 대해 협력국에 대한 직접

적인 경제발전 기여 인력 양성 특히 제조업 관련 기술 인력 양성에 주로 집중하여 왔다. 향후, 개도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 분야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한 지식 경제에 대비한 인력 양성 사업도 같이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 기술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소통능력, 팀워크, ICT 능력 등에 대한 생애 기술 측면에서의 교육 훈련 분야도 포함하는 교육과정 개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직업훈련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 지식화, 수혜자수 계량화 작업 등을 통해 교육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세부목표 4.5의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 사업은 총 21건 4,657만 불이 지원되었다. 빈부격차가 심한 중남미 국가나 분쟁 후 재건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특수학교 및 소수민족 지원 교육 사업 등이 주로 이루어졌다. 향후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수혜자 그룹으로 하는 학교 밖 아동 및 여성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부목표 4.6 문해 및 수리교육은 KOICA에서 그간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지원 사업, WFK 수학 및 영어 봉사단원 파견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KOICA 자체적인 문해 및 수리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일관된 정책 마련이 SDGs 내 이 분야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목표 4.7의 달성을 위해서 KOICA ODA교육원과 지구촌체험관은 개발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최고의 통로이다. 개발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의 이론과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갖춘 양 기관을 통해 KOICA는 본 교육을 국내에서는 영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또한, 수원국 현장에서는 WFK 봉사단원 및 한국 교원을 통한 교육 전파가 가능하다. NGOs 및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 확산은 현재 선진 원조공여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법으로 참고할 만하다(Jääskeläinen 2013:88). 또한, OECD DAC 국가 및 수원국 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및 교육의 다양화 등은 KOICA가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분야이다. OECD DAC 국가 내에서 정부원조기관이 개발교육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KOICA도 향후 15년간 본 교육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교육계와 개발계의 가교역할을 감당토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교육시설과 학습 환경을 다루는 세부목표 4.a는 KOICA가 2016-2020 교육 분야 중기전략 중 기초교육 분야의 핵심주제로 추진 예정인 ‘효과적 교육을 제공하는 건강한 학교’의 내용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KOICA는 장애나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이가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교육시설에서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건축과 개선 시 성별 및 장애로 인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건축양식 및 기술을 적극 권장하고, 교육환경 평가 시 안전하고 비폭력적인지 점검하는 항목을 적극 도입해나갈 예정이다.

세부목표 4.b 관련하여 KOICA는 개도국의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 거버넌스 개선 등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해 장기 석박사 과정으로 연간 약 70여국의 350명을 초청하여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세부목표 4.b의 달성을 위해서 KOICA는 WFK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고급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개도국 장학생 수 확대 목표가 확정되면 KOICA는 WFK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기 석사 과정 지원사업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펠로우십 프로그램(CIAT)을 통해 국가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정보통신 기술, 기술, 공학 및 과학적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고등교육 분야에 등록하여 고급인력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사의 역량강화 지원을 강조하는 세부목표 4.c 또한 KOICA가 2016-2020 교육 분야 중기전략의 핵심주제로 추진 예정인 ‘전문성을 갖춘 열정적인 교사’의 내용과 거의 합치한다. KOICA는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요인 중 하나가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때문이었음을 상기하고, 개발도상국의 교육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을 위해 교사 양성체제를 강화하고 교원의 전문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ODA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격을 갖춘 교사를 양성시키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교사들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무교육 체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김진희 · 최정윤 · 박환보 · 안해정 · 서기준, 2014.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동향 분석”.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Barrett, Angeline. 2009. “The education millenium development goal beyond 2015: Prospects for quality and learners.” EdQual Working Paper Number 13. Bristol: EdQual.
- Jääskeläinen, Liisa. 2013. “A Short History of Global Education in Finland-From the Perspective of a Curriculum Developer.” pp.82-94 in Global Education in Europe, edited by Neda Forghani-Arani, Helmuth Hartmeyer, Eddie O’Loughlin, and Liam Wegimont. Münster: Waxmann Publishing Co.
-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Paris: OECD Publishing.
- OECD DAC. “ODA at a Glance.” https://public.tableau.com/views/AidAtAGlance/DACmembers?:embed=y&:display_count=no?&:showVizHome=no, 검색일: 2015.06.23.
- UNESCO. 2000. “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Paris: UNESCO.
- _____. 2006. “Literacy for All.”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6. Paris: UNESCO.
- _____. 2015. “Education For All 2000-2015: Achievements and Challenges.”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5. Paris: UNESCO.
- UNSD. 2015. “Targets in the Proposed SDGs Framework.” New York: UNSD.

